



**땅끝 특별 채화 성화 전달받은 김영록 전남지사**  
 전달받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오전 해남군 송지면 땅끝 맨섬광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성화 특별채화식에서 칠선녀에 의해 채화된 성화를

## ‘200조 부채’ 한전, 호남·4선 김동철 사장 선임

### 62년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 임기 3년...1년 단위 연임 가능

한국전력은 18일 호남 출신의 4선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22대 사장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 된다.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전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3~5배수로 추려 전달했다. 이후 한전은 김 전 의원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부에서 공식 접수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장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앞으로 김 전 의원의 사장 인선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면 최종 결정된다. 한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1955년에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로 광주 광산구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4선(17·18·19·20대)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등을 맡았다.



2002년부터 1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 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앞서 한전은 역대급 적자에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정승일 전 사장은 산업부 제1차관과 가스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임기 내 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났다는 이유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관 점에서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결국 정 전 사장은 지난 5월 19일 역대급 적자 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가 201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전의 재정악화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오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시점도 다가오는 만큼 한전 사장 임명에 속도를 낼 것이라 관측이 제기된다.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 한전은 18일 4분기 전기요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오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 광주·전남 아동학대 최근 5년새 2.7배 ↑ ...가해자, 부모가 '최다'

2018년부터 5년 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 광주 966건·전남 1368건 집계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늘어났고,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관 의원(대구 달서병)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광주 966건, 전남 136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선 연도 별로 2018년 108건, 2019년 147건, 2020년 156건, 2021년 262건, 2022년 293건으로 5년 새 2.71배 늘었다.

전남 역시 2018년 127건, 2019년 239건, 2020년 289건, 2021년 362건, 2022년 351건으로 급증세였다. 2.76배 경증 뒀었다.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한 달에 38.9건 꼴로 사실상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지난해에만 1만 1970건 발생했다. 유형 별로는 신체 학대가

80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 2046건, 방임 756건, 중폭 656건, 성 학대 32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1만 6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 690명, 교원 645명, 보육교사 550명 순이었다.

김용관 의원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는 은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체계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 광주시 “성묘·별초 야외활동 때 안전사고 주의력”

광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별초 등 야외활동때 벌쏘임·예초기 사고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18일 강조했다.

벌쏘임 사고는 지난해 전국에서 6935건·광주에서는 131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82.2%가 7~9월에 집중됐다.

벌쏘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성묘·별초 댄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모자와 긴 옷을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 향수,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벌이 쏘며 공격할 때는 움크리거나 옆드리

지 말고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뱀·진드기 등 각종 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산행 등 야외 활동때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예초기 사용 때는 안면보호대·보안경·무릎보호대·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작업 공간 15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칼날의 이물질은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 뒤 제거해야 한다.

이슬비 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제23회 곡성심령

# 어린이 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3. 10. 6. 금 - 10. 9. 월

곡성심령강기차마을

- 6일 캐리와 꼬마친구들
- 7일 반짝반짝 달님이
- 8일 브레드 이발소
- 9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